

I. 서론

지난 주일 설교 요약

오늘 본문은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여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 여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다.

II. 본론

1. 본문 관찰하고 해석하며 읽기

- 1) 백부장 율리오의 감독 하에 누가와 아리스다고와 함께 배를 타고 출발하는 바울 (1-2절)
- 2) 시돈 - 구브로 해안 - 길리기아, 밤빌리아 - 무라시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다. (3-6절)
- 3) 니도 맞은편 바다에서 큰 바람 - 살모네 - 그리데 해안 방패삼아 - 미항 도착 (7-8절)
- 4) 뱌닉스 가서 겨울을 나려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위험하다고 만류하나 듣지 않음 (9-12절)
- 5) 뱌닉스로 가다가 유라굴로 풍랑 만나 짐과 도구 다 버리고 고생하며 쫓겨 다님 (13-20절)
- 6) 소망 없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희망의 메시지 (21-26절)
- 7) 육지에 가까워 왔을 때 사공들이 도망치려 하자 바울이 저지함 (27-32)
- 8) 바울의 권유로 배에 탄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바울이 축복해 줌 (33-37절)
- 9) 배가 모래톱에 걸려 파선되었으나 모두가 구조되어 멜리데 섬에 상륙함 (38-44절)

2. 본문의 말씀이 주는 교훈

첫째 하나님께서는 사명자 한 사람을 인하여 다른 사람들까지도 지켜 주셨다.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에 죽으면 안된다. 바울 때문에 함께 탄 사람들도 살 수 있었다. 나는 바울과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요나와 같은 사람인가 스스로 물어보라.

둘째, 하나님은 사명자를 크게 해 주셨다.

처음 배를 탈 때 바울의 신분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할 죄수였지만, 구조 받을 때쯤에서는 바울은 어느새 배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크게 해 주셨다.(수4:14)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셋째, 풍랑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바울은 풍랑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했다.(22-25절, 34-36절) 풍랑 없이 순풍가운데 갔다면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 없었을 것이다.

넷째, 복음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 준다

동영상 시청: 루빈 케드릭 선교사의 이야기와 편지

III. 결론

말기암 투병중인 이세영 목사님의 간증

우리 모두 유라굴로 풍랑중에 은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암송

이번 주 외울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6-18)

통독

이번 주 통독 말씀

11/23(월)	11/24(화)	11/25(수)	11/26(목)	11/27(금)	11/28(토)
히 8-12장	히 13-약 4장	약 5-벧전 4장	벧전 5-벧후 3장	요일 1-5장	요이 1-계 2장

QT

이번 주 QT 말씀

11/23(월)	11/24(화)	11/25(수)	11/26(목)	11/27(금)	11/28(토)	11/29(주일)
단 4:1-18	단 4:19-27	단 4:28-37	단 5:1-12	단 5:13-23	단 5:24-6:2	단 6:3-14

나눔

목장 나눔 문제

1. 오늘 설교를 통하여 새롭게 깨닫거나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한 가지씩 나누어 보세요.
2. 바울을 태운 배가 14일 동안 풍랑가운데 모든 짐과 도구와 곡식을 버리기까지 이리 저리 쫓기며 고생했습니다. 배의 행적을 지도로 살펴보며 그들이 겪었을 두려움과 고통을 나누어 보세요.
3. 목사님께서서는 설교에서 본문에서 네 가지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설교 요약지를 참고하면서 그 네 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 사람이 하나씩 나누어 보세요.
4.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외에 자신이 발견한 교훈이 있으면 나누어 보세요.
5. 자신의 생애가운데 유라굴로 폭풍가운데 역사하신 은혜를 나누어 보고 감사의 제목과 내용을 서로 나누어 보세요.